【一】 第二千三百四十六號 The Chose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水曜日】 昭和二年三月二十三日

朝鮮日報

二十二日夕刊

時評

上海畢竟陷落

×

上海는二十一日에 畢竟北伐軍의손에들어가게되고 蘇州도또한同日에 南軍의손에들어가게되엇고 南京의陷落이또한目睫間에잇다는것을傳하게되엇다 南軍이上海를占領함에는 別로武力을쓰지아니하고 聯合軍의內應과 上海住民의總罷業等에依하야表示되는歡迎에依하야 遂成된것이니 此所謂簞食壺漿으로義軍을맛고 奚爲后我오하는觀이잇는것을생각케한다

×

南軍이上海를占領하엿다는것은 勿論從來에張宗昌、孫傳芳等의指揮下에잇던上海를占領한것이니 즉中國人의上海를占領한것이요 아즉外國人의居住하는共同租界及佛租界를占領하엿다는것은아니겟다 그러나今番南軍의目的은打倒帝國主義에잇는것인즉外國에對하야 아모리一絲不亂의規律을保持한다하더라도群衆의激動하는곳에或은 外國人과의衝突을惹起할念慮가업지아니한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밋는다 南方軍은어대까지던지 外國과武力的衝突을避하기에 全力을쏠것이다 그러나그러라고해서 租界回收의意思、拋棄한다는것은 決코아닐것이니 或은漢口 九江等의租界를回收하던것과同一한方法으로써 즉民衆運動에依하야 그것을回收하려고努力할것은事實이겟스니 要컨대될수잇는대로 速히上海租界를完全히回收할생각은물론가즐터서그手段에就하야 顧慮할것이다

×

이러한때에잇서서 列國의些少한行動이라도 能히民衆을衝動하야 大衝突을이르키고 또는그것이發어서 第二次의世界大戰을 이르킬念慮가잇는것이니 此間에處하여서의 列國의態度는매우愼重함을要할것이다 現在上海租界에는英國의陸軍을筆頭로하야 各國의陸戰隊가잇서서 그數가二萬에達한다하니 武力으로는 그들이 能히合力만하면 南軍의防止를充分히行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그들이 軍事的行動을取한다는것은 世界史上에다시取消할수업는 大罪惡을짓는것이니 그들의態度는必然코一致되지못할것으로보는것이 妥當하겟다 果然지금이上海問題는 世界史的 意味를가진것이니 우리는그進行에對하야一層銳敏한注意를가지아하겟다

東南戰局大飜覆

上海無抵抗占領

二十一日午前十一時에

城內와港口에靑天白日旗飄揚

(上海廿一日發) 南軍은山東軍을 一蹴하고本日午前十一時上海를占領하야城內及港灣에는靑天白日旗를揭揚하엿더라

陷落原因은畢庶澄妥協

(上海二十一日發) 畢庶澄은革命軍第四十一軍長就任을條件으로 革命軍과妥協이되어無抵抗으로上海는革命軍에歸하엿더라

停戰命令

畢軍長發布

(上海廿一日發) 山東軍第八軍長畢庶澄氏는廿一日正午에國民黨軍第四十一軍長에就任하는同時에山東軍에對하야停戰命令을發하얏더라 (寫眞은新軍長畢庶澄氏)

蘇州도同日占領

(上海二十一日發) 蘇州는二十一日 南軍의手에占領되엇더라

租界接界까지 革軍先鋒이進入

北車站에歡迎會開催

(上海二十一日發) 國民黨軍先鋒은二十一日朝上海租界에隣接된中國街에入하고北停車場에잇는山東軍司令畢庶澄氏는南方과內通하야形勢가忽然히一變하얏는데午後四時에北停車場에서國民黨軍歡迎會가잇고一時부터正式의總罷市가開始되엇더라

總罷業罷市

廿一日午後一時開始

宣傳員橫行

(上海廿一日發) 上海의總罷業總罷市는廿一日午後一時부터開始하고同一時三十分에至하야郵便局을비롯하야官公署及大小商店에靑天白日旗를揭揚하고市內到處마다群集이雜踏한中에國民黨의宣傳員은喊聲을지르며市內에橫行하더라

徹底的總罷業

(上海二十一日發) 總工會方面의消息에依하면今回는畢竟徹底的으로總罷業을할터인데僑務工會(外人使用中國人組合)도組織되어總罷業에參加하기로되엇더라

直魯聯軍退却

(上海十九日發) 常州附近에在하던直魯聯合軍은十九日揚子江을건너靖江으로退却하엿더라

白氏鎭江防備

(上海二十日發) 常州에入한白寶山軍은常州西方奔牛鎭方面에一部를派하고鎭江方面에對하야防備를張하는中이더라

吳督辦辭職

(上海廿一日發) 十九日南京에逃亡한浙江省督辦吳光新은本日辭職通告를發하엿다더라

農民協會員 總工會襲擊

(上海廿日發) 九江發確報에依하면十七日午後右傾派에屬한農民協會員은突然共產派의總工會를襲擊하야大格鬪를演出한外닭에同夜는戒嚴令이發布되어警戒가嚴重을極하엿더라

周軍龍華出現

(上海二十一日發) 上海郊外龍華方面을守備하고잇던山東軍은二十一日朝一時北停車場에退却하고革命軍第二十六軍周鳳岐의先遣隊는午前二時三十分龍華에現出하엿다더라

兩軍衝突

寶山路延燒中

(上海二十一日發) 二十一日午後五時山東軍七、八百名은北停車場으로부터... 軍은列車에서機關銃으로攻擊하고便衣隊도또한一齊射擊을하야一方交戰은아직쉬지안헛스며一方寶山路에는火炎이닐어나夜九時에이르도록火光은衝天하야大混雜을呈하엿더라

督辦公署員全部引退

(上海十九日發) 滬杭鐵道方面의唐軍先鋒은十九日上海를距하기十五哩의地點에達하엿더라

電氣工聯合會 印度兵과衝突

(上海二十一日發) ...

◇南軍에게占領된 上海

南京陷落은 時間問題뿐

秣稜關占領、城外逼迫

(上海廿日發) 南軍은十八日秣稜關을占領하고드대어南京城外에逼迫하얏슴으로山東軍은紀律을失하고南京市中은混亂狀態에陷하엿다南京의陷落도時間問題로서危殆에瀕하엿다고傳하더라

日本陸戰隊 警備를擔當

(上海廿日發) 日本陸戰隊도今明日中에畢竟行動을開始하겟...

近及滬杭甬鐵道沿線警備에當하기로되어이미鐵條網土囊等을同文書院에運搬하엿더라

市內警備 極度嚴重

(上海二十日發) 上海租界境界線의通路는二十日午後三時頃부터全部閉鎖하고鐵條網을둘러租界外와의交通은遮斷되엇스며北四川路方面의警戒는가장嚴重하고租界와의各通路에는五六名식의印度兵이配備되엇스며北停車場附近에는武裝兵이通行中國人의身體檢査를한다佛蘭西租界境界線에는中國市街에서만흔避難民이몰리어와서木柵을붓들고開門을哀願하는中이더라

流彈各所落下 負傷者가夥多

(上海二十一日發) 租界內外에도靑天白日旗가飜揚하고警備의巡査와印度兵은衝突하야印度兵二名은殺害되엇다또한流彈은間斷히各所에落下하야負傷者는多하나詳細는不明이더라

砲彈租界內飛來

(上海二十一日發) 二十一日午後五時부터繼續하야銃聲은閘北一帶에까지들리는데租界外의南軍便衣隊와西側의山東軍은對峙하야互相銃火를交하는外닭에山東軍의銃砲彈은租界內에飛來하야北四川路日本人小學校에小銃彈四發、隣接基督敎會印刷所에砲彈三發日本陸戰隊本部、日本高等女學校에落下되어一個는□發되엇스나死傷者는업나더라

印度民도 民族的精神自覺

英帝國主義反抗

對中出兵費를議會에서否決

(某所着電) 十七日印度議會는總督이提出한豫算案에對하야英國의帝國主義를支持또助長하는것이라하야大多數로否決한바右豫算은英國政府가多數한印度兵을中國에派遣한費用과關聯되는것임으로政府의失敗로看做되어印度民이中國國民軍과相應하야英帝國主義를反抗하는民族的精神에自覺한것을觀하지마는... 하는것은事實이더라

◇南軍에게占領된 蘇州

山東軍不戰自壞

(上海廿日發) 山東軍의總退却은南軍은破竹之勢로殺到하야十九日以來上海는非常히緊張을示하야廿日朝來各國陸戰隊의租界警備는極히嚴重하다畢庶澄氏의態度는交戰치아니하고南軍을上海에迎할지도未知이라고豫想되어平和裡에上海는南軍의手中에歸하리라고觀測하더라

閘北警察署全燒

(上海二十一日發) 閘北警察署는二十一日午後□時頃부터突然砲火되어火는警察署를全燒한後閘北의正面인鳳山路一帶에燃及함으로危險區城은消防隊가出動하나오히려火炎이盛大하야手를措치못하더라

上海市大混亂

交通機關이一切斷絕

(上海二十一日發) 南軍의便衣隊數十名은二十一日午後零時를지나虬江路中國警察署를襲擊後空砲를노흐며威嚇하야巡査의武裝을解除하고警察署를占領하얏다다시繼續하야北四川路에沿한租界外의各警察分署를全部襲擊하야占領하얏는데이騷動으로附近住民은狼狽하야租界에逃避하려한다警戒線은鐵條網을遮斷하야通行을禁한外닭에混亂은말할수가업섯다이와가티하는中에便衣隊는捕獲한鐵砲、靑龍刀를가지고隊伍를지어市中으로돌아다니엇는데數百名의群衆도이에和하야喊聲을지르며다니엇는데

모든被壓迫民族과 (一)

모든被壓迫階級에게

부룻셀反帝國主義大會宣言

◇

大會에參集한 온世界의被壓迫諸民族及勞働階級의代表者들은 一致協力하야 그基本的諸權利를確保하며 그發展을確保하기爲하야

兄弟的同盟을締結하엿다

數億의人類가 人爲的인疆壓으로 物質的及道德的 沒落을當하야 外來한資本主義的搾取의無自覺한犧牲이되고 이搾取를爲한鬪爭이 民族間의平和를 恒常새로운流血의慘劇으로써 脅威하고잇다 이危險하고不幸하고奧褻的이고野蠻的인狀態는 참으로더길게堪耐해질수는업는것이다 우리時代에와서는 帝國主義의政策에依하야더强해지고 從來에업섯던範圍에까지擴大된 이數百年間의恥辱에對하야 歷史는그取消할수업는判決을내렷다 數百年동안에繼續된 海外民族及種族 즉亞細亞 亞弗利加 亞米利加의諸民族及諸種族의 冷酷하고××하고刻薄한搾取는 歐羅巴의資本主義가依하야 養育되어온重要源泉의하나이엇섯다

◇

形言할수업는壓迫 즉全民族、全種族의絕×을 單純히目的한 非人類的奴隸化、非人類的强制勞役

이것이 처음에는歐羅巴의 그다음에는 歐羅巴—亞米利加의資本主義及 其發達展開된物質的과精神的文明의 偉大한殿堂을築成하는데必要한것이엇섯다 그壓迫으로因하야 絕滅된民族及種族中에는 오늘날그일흠外지도남어잇게못된것이잇다 大洋의저便에 往往히一部는他部는 本土人들과融和하야 成立된새國家들外지도 資本主義的母國들의攻擊的及貪慾的利己主義에對하야 自主的國民的存立의權利를 戰爭에依하야擁護하게케만되엇섯다 그리하야이國民的獨立을爲한鬪爭이成功되는때는 大槪는資本主義的母國相互間의敵對關係만이 그前提條件을作하엿섯다 前世紀의末葉에出現한獨逸이라던가 伊太利와가티 歷史의舞臺우에 出現한모든새資本主義的國家들은나 또한自己네들도 殖民地民族의壓迫 奴隸化의途程으로들어가는것이 必要하다고생각하엿섯다 어떠한資本主義的國家던지勿論하고 그가달은弱하고保護업는民族들을壓服하지아니하는동안에는 同等的資本主義的大國으로 待遇바들수는업섯다 이壓服은여러가지階段으로나누어져잇는것이니 隱然한監督으로부터 公然한奴隸化外지에 이르는것이다

◇

資本主義的諸國民이 最高度로發達된 現在의時期에잇서서 즉

帝國主義의時代에 잇서서는이野蠻的 ××한制度가아주

完全히發達되엿다

財政資本主義의새形態에잇서서의資本主義的集積의 餘裕는一般的으로 지금外지아즉非資本主義的狀態에잇는全世界의決定的屈服을要求한다十九世紀의末期及二十世紀의初期에잇서서는그것이帝國主義的列强의小集團사이에잇서서 世界를完全히分配하게되엇섯다 蓄積된資本의힘과 鐵鋼과大砲와其他最新最完全한××機械의힘에依하야支持되는 强國의小集團 또그들이 世界를支配하기始作하엿섯다 最初의 아즉決定的으로分配되지아니한地域을차지하려고하고 또世界의再分配를要求하는 帝國主義的列强의鬪爭이終末에大破裂을보게되며 人類歷史上最大한罪惡 즉世界大戰을誘致한것이다

八面鋒

○ 上海도占領、蘇州도占領、南京은朝暮陷落、革命軍은果然乘勝長驅

○ 그反面에、聯軍形勢는모든將領이繼續投降하야、不戰自壞한다고、內潰이터지는것가티、더무서운病은업것다

○ 이제는、東南戰局의 一段落지을날이머지안헛다、上海만占領하면國民政府를、承認하겟다든、關係列國은準備가잇나

○ 上海에 잇는、우리同胞들은、南軍의 歡迎을準備하다고、남의成功만祝賀….

昨日附朝刊押收 削除後號外發行

白租界 建設費 賠償拒絕

(北京二十一日發) 消息에依하면外交部는...

北四川路의商店은이外...

人事消息

▲도브리오키이氏(駐...) 廿四日午前十時京城... 東京에赴任하리라는... 局에왓더라

가정평론
사회에살가 사랑에살가 (一)
塔園生

◇생활의 목표를 세우라는 현대인(現代人)은 모다갈림길에 당도하엿다 한길은개인(個人)을 본위로한길이오 한길은사회(社會)를본위로한길이나 이두길은 우리로하여금 매양 주저인순(躊躇因循)케한다

◇개인 본위의길을 밟으면 어느시긔까지는 어느뎡도의 자긔생활은 보장할수도 잇겟고 또한조고마한 향락을누릴수도 잇는것이다 그러나사회(社會)라는 큰집단 생활의 사실을 압헤노코만사를 거긔에근거삼어 행동함에는 만흔경우에 자긔라는것을 희생치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럼으로 현금의 사정으로 보아서는사회의리익이 개인의리익과 합치하는경우도 업지안흐나 대개는 사회의리익과 개인의리익은 서로배치(背馳)가 된다고볼수잇다

◇그럼으로 사회에 살려면 자긔의개성을 만흔경우에 희생하게되고 개인에살려면 공공의 도의심가튼것은 돌아보지안케 되는것이다 혹세상에서 이러케말하는 사람이잇다 위에한 개인주의사상과 위에한 사회주의사상은 서로일케되는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생활사실을 떠나의것으로 보고 그것을 론리사상에나 철학사상에 근거를부처어죽굿이 갓다는것이니결코근대의개인을 본위로한 생활과 사회를본위로한생활을 혼동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러한 문뎨는 현하일반 인류의 중대한문뎨이지만 이가튼 경우에서 여러가지로 번민하는이가 우리녀성 가운대에 무수히잇슬것 입니다 (계속)

안경쓰는이들의 봄철에주의할것
◇잘못하면신경쇠약에걸린다

「트라홈」은 그병세가 더처가면눈두덩결막(結膜)이 쏴를쏴를해저서 눈알을 문질느게되며 상처가생기게됩니다 이것을 반흔성(瘢痕性)트라홈이라고하며 그것이심하면 눈을 영영보지못하게되는일도 잇습니다 그러나 이눈병은 아모리오래되어서 만정뎌인것이라도 결단코 나흘수업는것은아닙니다 이병는 수술만잘하면 의례히 낫는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만잘하면 재발치안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봄에는환경(環境)의관계도 물론 잇겟시마는 특별히 만흔것은눈쎄문에드는 신경쇠약(神經衰弱) 입니다 엇전지봄이면 신경쇠약이만허집니다 예전에는 신경쇠약이라면의례히 신경과로(神經過勞)로 그런병이 드는것이라 하엿지마는 지금에와서는 여러가지로 연구한결과 신경과로뿐이 아니라 눈으로인한안성신경쇠약(眼性神經衰弱) 이란것이 발견되엇습니다 더욱히 눈을 만히쓰는도회인(都會人)에게는이러한안질로 오는신경쇠약이 만흔것을알게되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평소에란시(亂視)사시(斜視)원시(遠視)가튼증세를가진사람은이된고가되면 신경쇠약에 걸리는일이 만습니다 그중에도특별히 잡복성의사시(斜視)가튼것은자긔도 잘모르고 또한의사가진찰하기도 어려운일이 잇습니다 그런고로 부지중에 비상히두뇌에 해를 미치게하는일이 만흔듯함니다 또한봄이란것은 인톄의각세포가 활동하는시긔입으로 여러가지『셀리케트』한변화가톄중에 일어나게되어 근시 란시 원시가튼 증세가잇는 사람에게는 그도수(度數)가더치기쉬운시긔입니다 그럼으로 안경의도수도 틀리게되는까닭에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지나면 더욱히 신경을 상케하는일이만습니다 그럼으로 안경을 쓰는사람이면 봄에는특별히 안경에 주의를하여야될것 입니다

이야기거리

늙어도 아이구 공부는해서무얼해하고 탄식하는것이 항상사람의버릇이다▲그럼매 손자까지본 오십여세가된 늙은녀학생이 바람이불든 눈비가오던 조금도 겁내지안코 학교를다니어 영어를 공부하엿다는 긔특한이야기가 잇다▲그는 해야유좌(海野遊佐)라는 일본녀자인데 사오년동안에 남편과자식을 둘이나 일허버리고 한때에는 슯흔탄식으로 세상을 지나다가 엇더케든지 마음을잡어볼가하고 영어학교에 입학하여공부하는 동안에 자연히공부에착미가되어슯흔것도이사이에는이처버리고 영어의 소설(小說)이나시(詩)도넉넉히 읽게되엇다고(사진은 … 녀사)

독일에서데일가는미인

요얼마전에『파나메트』영화회사에서미인배우를모집할째에『헌가리』출생으로합격된금년십칠세되는『마리아'마치우스』라함니다

이상한선물
童話 文秉讚

어느곳에 마… 혼임금님과왕… 다 평화(平和)… 려운날을이엇… 그런데 그행복스러운것에 더 행복스러운날이 몰아 왓습니다 그는귀엽고 어엿븐 공주가탄생(誕生) 한것이엇습니다 공주에게는특아이데나』란일홈을 지엇습니다 임금님과왕비님의 깁븜은참무어라고말할수업섯습니다 임금님는이깁븜을국내(國內)에알리기위하야 먼곳까지 신하를보내시엇습니다

『공주님이 탄생되엇습니다 이깁분날을 축복(祝福)하고 십흔사람은 궁전(宮殿)으로 오시요』

하며신하들은떠들고다니엇습니다

이말을들은 여러사람들은 참으로이날을 마지하기위하야 궁전으로들어오기시작하얏습니다 잘사는사람이나 빈한 한사람이나 또는관인(官人)이나상인(商人) 이나아이나어른이나할것업시모다 깁분낫츠로 궁전뜰가운대로모혀들엇습니다마당가운데에잇는분수(噴水)의물을놉히쌔치어서그물이나리는곳에는오색이영롱(五色玲瓏)한무지개(虹)가떠잇섯습니다 화단의붉은장미쏫(薔薇花)은 크게피어 잇섯습니다 자색(紫色)으로 빗나는할미쏫은 왼마당에향긔가 진동하얏습니다 숩사이에서는 적은새들이노래하고화초밧우에서는금빗(金色)가튼벌들이깁븐듯이날으고잇섯습니다

유모(乳母)의손에가만이안기어 고히 고히 잠들어잇는공주를바라보는여러사람들은

『참ㅣ무어라고말할수업는 어엽븐공주님이지요』

하며말하얏습니다임금님는이말을들으시고 빙그레 우스시엇습니다

『공주님만세공주님만세ㅣ』

하며 모든사람들은 깃븜을참지못하야서 그여럿이 큰소리로만세를 불른것이엇습니다 고히고히잠들어잇든 공주는 그소리에잠이쌔어서 동그런눈을 깃분듯이바짝거리엇습니다

라듸오
二十三日 放送 프로그람

午前九時四十分午後〇時五分 定期放送

午後〇時十五分 歌詞 가、春眠曲 나、首陽歌 漢娑 金眞紅 金月香

午後一時 講演 人生의未來와 生命保險 權永稷

午後一時四十分同三時五十分 定期放送

午後六時 童謠 가、正月 나、송옷입는겨울 다、어머니만 나려가세 金永淑

午後六時三十分 新入學生及進級學生에게 河崎山洋

午後七時 一、西道雜歌 가、開城難逢歌 나、놀량 다、巫女遊歌 宋德基 崔丙楠

二、四絃琴獨奏 空想曲 齋藤イツ子 伴奏 大場勇之助

三、講讀 西遊記 李文源

四、만도린合奏 가、부슈른作 妖女舞 나、武井守成作 집찻는秋風 京城만도린合奏團 指揮 河野孝義

五、端唄 靑柳 立山 都都逸 小唄 秋의七草 立花家春江

六、落語 不動坊火焰 橘家天坊

七、『뉴스』

八、歐曲 가、言昇 나、冒樂 다、編樂 라、編 張德根

九、翌日順序發表 時報

한글
죄의빗(罪의債) (二)

얼마동안정신을 차린뒤에마음에두렵고 뉘웃입은부엇이라고 말할수없었읍니다 그리하여 그길도방향없이 그낭산능쳣어로아모대로나 갔읍니다 얼마를가다가 절을맞나서 그끝에서몇날있는동안에 중이나되어서 부처님앞에서 죄를벗어볼가하는생각이났읍니다 그러나그끝에있기는 좀조심이되어서다시길을떠나 멀이멀이 찾아서 건원사로께서공부하시든 그절에가서 중노릇을하게되었읍니다 그때부터누구에게던지 권대를받고 부림을받고하야 조끔이라도 저의죄를덜어볼가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구던지 힘써도아주고 정성것섬기었읍니다 그러나저의 마음은 갈스록 앓으고 갈스록 두려웠읍니다 더욱 남에게 높은대접을 받던칭찬을들을때에는 가슴을찬칼로 쑤시는것 같아서 참으로 견딀수없었읍니다 어느때에던지 늘저의머리우에서는 그누구가 눈을부릅뜨고 서리빛같은칼을 손에쥐고 저를놓이어찌르랴는 어렵풋한 모양이보이며 이죽일놈아하는소리가 늘저의귀에들립니다 이즈음 사토를 뵈온뒤에 사토께서 저를 그대지 귀애하시고 사랑하실때에는 저는 더욱두렵고 더욱송벘읍니다 그리하여 어느때에던지 이사정을 바른대로 사토앞에 알외고 사토의 밝으신현별아래에 엎들여 죽어서 이큰빗을벗어버리라고 하였었읍니다』

지황인검이 감사로 부임하여 췄청사로 전부터나려오는 숙안(宿案)으로 살옥사건(殺獄事件) 의범인(犯人)을아직것잡지못함을 분히녀여 그때맞힘 눈치빠른 포교돌을 사방으로 놓어놓아 긔찰(譏察) 하는숭이었읍니다 이제 중의하는 이말을다듣고 나서는 곳 그때 그범안문서(犯案文書)를 놀여다가 맞혀본즉 거주성명년령과 일늬진상도 조금도틀리지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리하여 감사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오냐 가엽다 내가너에게진은혜도 두렵거니와 네가그동안 깊게 뉘옷이어 받은바고생도 적다고는 할수없다 나의마음으로는 참아너를 죽일수없다 그러나 할수없다 나라에서 작정한법률는 사정으로 밧구지는못할것이다 나의권세와 나의사랑함만으로는 너를살려낼수없으며 너의여간뉘옷힘만으로도 그죄는벗을수없다함일없다 너는죽어라』

하고 감사는그만울었읍니다중은조금도 두려워하지아니하고

『네 죽겠읍니다 죽여주십시오 죽는것이맞당납니다 저의몸은 오늘까지살았다할지라도 저는령혼은 벌서죽었읍니다 이몸이 맞어죽었더라면 십년갓가운 그동안에 그무서운 마음의 괴로움을 아니 받었을것을 다만이몸이 있기때문에 받어왔읍니다 만일이몸이 언제까지살아 있다면 그괴로움은 언제까지 니어나려갈것입니다 저는 죄의빗이란 무서운것인줄을깨달었읍니다 다른빗은지고 살수있으되 죄의빗은지고 살지못할것인줄도 압니다 언제던지 갑지아니하면 그빗은 이생(此世)래생(來生)후생(後生)까지 흠어나려가서 그칠바가 없을것입니다 저는이제 사토앞에서죽게됨을 퍽질거워합니다이는 곳 사토를 증인으로세우고 그큰빗을 갚게됨이올시다』

라고하였읍니다 그가형벌을받올때에 이렇게부르짖었읍니다

『오! 빗이어! 무서운죄의빗이어!! 갑지않고는 되지못할죄의빗이어!!!』(끝)

키일혼帆船
李益相 作 李靑田 畵 【76】

혜경은 한참 생각 하더니

『어렷슬째가 행복스러운사람도잇겟고 그러치못한 사람도잇겟지요 그러치만 저는 어렷슬째가 어느것으로 보든지행복스러웟서요!지금에와서는무엇을생각하고 장래에엇더케될해나갈것을 걱정하고ㅣ모도가 귀치안흔생각만나서 그대로!』

하고 혜경의 얼골은얼마큼우울해젓다

『무슨걱정되는일이 잇습니까 말슴하시지요』 하고 창호는 뭇고십헛스나 문뎨가 넘우깁히들어가는듯해서

『인간이란누구든지 번노(煩惱)가 잇겟지요』

하고 그대로 넘기엇다

이러하는동안에 저녁밥상이 들어왓다 그들은 말을중지하고 밥을 먹기시작하엿다

『혜숙이나 왓드라면 조흘번햇서요!』

하고 혜경은 밥쎄가 넘우고요한것을 유감으로 아는듯하엿다

『글세 오셧드라면 조화할것을 그랫습니다!』

하고 혜경의말을 바더 그로 대답하엿다

더얼마뒤에 밥이옷낫다 밥상을 물린뒤에 혜경은늠금、밀감과배가 소담하게 담기인 크다란 류리접시를 압헤노코 그안의과실을 벗기어먼접시에 노흐며 창호에게먹기를 권하엿다 과실의 향긔와 혜경의분냄새가 조화가되어 그의 취각(嗅覺)을 자극하엿다 창호는 머리털이쏫빗하여지는듯하며 눈알이 핑핑 도는듯하엿다 전신의 울적한 긔운이 몸둥이의 한구석을 몰려히쪽발하는듯하엿다 그는 쎌리는손으로 벗겨노흔과실을 몃조각 정신업시집어먹엇다 어려하는동안에 그의정신은 얼마큼상태(常態)로돌아섯다 동시에 자긔의커다가 엇더한것을생각햇만한 리지(理知)도다시 눈뜨는듯하엿다

혜경이는 과실벗기는것이 끗나매 자긔도한조각을 집어들고먹은뒤에 말을쓰집어낸다

『창호씨!댁에 계신녀자가누구야요?압만해도 려염집녀자가터보이지는안해요?!』

창호는 혜경이가 엇지해서 인경의 이야기를 쓰집어내는지 그뜻을집작하는 그것만큼 대답하기가 좀거북하엿다 그러나 우물주물할커디도못되엇다 그리하야그는 인경의커디를 자세히말하얏다ㅣ즉 그가 아버지가누구인지도 모르는것과 그어머니가 몹시굴든것과 남의종으로주엇다가 다시쌔어다가 기생노릇을시켯다는것과 그가철이들자 서울도뛰어올라와서 사람다운생활을 해보겟다고 결심한것과 차중에서맛난것과 그가갈곳업는것이엇다

혜경은 한참동안 창호의말을 열심으로듯고안젓더니

『이세상에 그러한녀자도잇슬가요? 더욱이라락의구렁에싸젓든녀자로 말슴이야요?!』

하고 고지들을수업는것가티 말하엿다

『나도처음에는 퍽으나이상한녀자라고 대단한호긔심을 가지고 그녀자를 집에함께잇도록하엿지요 어대까지든지 그런녀자는 참된길노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것이 우리네의의무가래서 힘미치는대로 도아줄가합니다』

하고 창호는혜경의얼골을살펴보앗다

◇天氣豫報 曇後晴
◇溫度 廿二日 正午 四五、九
◇比較 廿一日 最低 三四、〇
◇日出前六時三四 晝間十二時一一
◇日入後六時四五 夜間十一時四九